서울특별시의회 2018 평창동계올림픽 지원 및 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안 번호 1628

발의년월일: 2017년 2월 6일

발 의 자: 김기만, 김광수(도봉), 김문수,

김인제, 김창원, 문상모, 문형주, 박기열, 박성숙, 박호근, 성백진, 송재형, 신언근, 우창윤, 유광상, 유 용, 이석주, 이정훈, 조규영,

최조웅 의원(20명)

1. 주 문

- 2018년 평창에서 열릴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 동계올림픽대회의 성공적인 개최 지원 및 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지방자치법」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제37조의 규정에 따라「서울특별시의회 2018 평창동계올림픽 지원 및 스포츠 활성화를 위한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 위원수는 20인 이내로 하고, 그 활동기간은 12개월로 하되 필요시 본회의의 의결 로 연장할 수 있다.
- 본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 보고서를 본 회의에 제출 한다.

2.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의회는 평창동계올림픽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스포츠의 대중화 및 활성화를 통하여 서울시 스포츠 정책을 업그레이드 시키고자「서울특별시의회 2018 평창동계올림픽 지원 및 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2013.11.26. ~ 2014.5.25.)를 구성하여 운영한 바 있음.
- 현재 개최가 확정된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대회 (2018.2.9. ~ 2.25.) 및 장애인 동계올림픽대회(2018.3.9. ~ 3.18.) 등의 대중화와 활성화를 통한 저변확대로 서울에서 동계스포츠의 붐을 일으켜 서울시 스포츠 정책을 업그레이드 시키며, 95여 개국의 5만여 명이 참여하는 평창올림픽의 대규모 관광 특수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2천만 서울관광시대' 조기 달성하고자 하고,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특수목적 관광(SIT : Special Interest Tour)인 '스포츠관광'을 활성화 시키기 위한 시의

회 차원의 체계적인 홍보 및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이에 평창올림픽대회 및 장애인 동계올림픽대회의 성공적인 개최 지원 및 스포츠 활성화 방안을 계속 논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 차원의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함.

3. 참고 사항

가. 관련 법령: 「지방자치법」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제37조

나. 예산 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없음

서울특별시의회 2018 평창동계올림픽 지원 및 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서울시에서는 직장운동경기부(23개 종목, 198명)가 운영되고 있고, 이 중 동계 종목은 비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의 경우, 빙상스피드(5명), 빙상쇼트트랙(8명), 컬링(6명) 등 3종목에서 13명의 선수가 활동 중이며,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는 휠체어컬링 1종목에서 6명의 선수가 활동 중으로 2018 평창동계올림픽 및 장애인올림픽의 유치성공과 동계스포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려하고, 서울 소속 메달리스트 출현의 활로를 개척하고 자 컬링팀이 2016년 8월에 창단되어 운영되고 있다.

다만, 2011년 7월 6일 남아공 더반에서 독일과 프랑스를 물리치고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유치하여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준비하고 있었으나, '국정논단 사태'를 일으킨 최순실 일가가 준비과정에서 이권을 챙기려 했다는 의혹이 잇달아 재기되면서 올림픽의 성공을 장담하지 못하고 국민적 관심이 저조한 상황이다.

따라서, 현재 개최가 확정된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대회(2018.2.9. ~ 2.25.) 및 장애인 동계올림픽대회(2018.3.9. ~ 3.18.) 등의 대중화와 활성화를 통한 저변확대가 선수들의 기량 향상으로 이어지고, 서울에서 동계스포츠의 붐을 일으켜 서울시 스포츠 정책을 업그레이드 시키며, 95여 개국 5만여명이 참여하는 평창동계올림픽의 대규모 관광 특수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2017. 2. 6.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일동